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경기 늘푸른중 임성은 교사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영상으로 쌓은 배경지식... 영어 공부의 자양분 되다



본문 해석을 마친 후 영어 질문을 만드는 학생들의 모습. 늘푸른중 제공

경기 늘푸른중의 영어 수업시간. 학생들은 교과서 본문을 학습하기에 앞서 유튜브 영상 및 영화 등을 시청한다. 본문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 주제와 관련된 영어영상을 시청하며 배경지식을 쌓는 것.

이 수업을 기획한 임성은 늘푸른중 영어 교사는 학생들이 영어의 읽기·듣기·쓰기·말하기 능력을 균형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영어영상과 '4RS(Reading Strategy) 기법'을 접목한 영어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교과서 본문과 연관된 영상을 시청한 뒤 4인 1조로 모둠을 이뤄 'Predict(예측하기)→Clarify(해석하기)→Question(질문하기)→Summarize(요약하기)' 4단계 읽기 전략으로 본문 내용을 학습했다. 교사가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일반적인 강의식 영어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문을 해석하고, 본문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며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영어의 네 가지 역량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께 기를 수 있었다. 임

교사는 중3 영어 교과서 모든 단원의 수업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임 교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묻고 들었다.

교사 아닌 학생이 주도하는 영어수업!

영어영상은 4RS의 첫 번째 단계인 '예측하기'에서 활용됐다. 임 교사가 본문 해석에 앞서 영어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학생들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영어지문을 해석하도록 하면,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영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영상을 미리 시청하면 배경지식을 활용해 본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 비교적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

예측하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가령 건축가 가우디의 인터뷰를 담은 교과서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이라면, 그의 생애와 건축물의 특징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먼저 시청한다. 이를 통해 가우디가 디자인한 구엘공원의 도자기 조형물이 재활용품으로 제작된 것이며, 그가 유년시절 자연을 유심히 관찰한 이유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등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실을 파악한다.

이후 교과서 삽화를 보며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영어로 요약해 노트에 적고, 영상을 보며 궁금했던 사항들도 영어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모둠원과 함께 공유하며 해당 단원의 학습목표를 스스로 정리한다.

이어진 '해석하기' 단계에서는 모둠원이 번갈아가며 교과서 지문을 읽고 해석한다. 이 때 모르는 단어, 대명사의 의미 등은 문맥으로부터 추론해 읽는 것이 핵심. 학생들은 본문을 해석하며 앞서 발생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영상과 본문을 비교하며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

임 교사는 “학생들은 주인공의 심정이 어떠한지, 영상과 본문의 논지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등을 비교해 읽으며 본문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영어실력은 기본… 비판적 사고력까지 기른다

해석을 마친 모둠은 '질문하기' 단계에 돌입한다. 이 때 학생들은 두 종류의 질문을 만든다. 첫 번째는 본문의 내용을 묻는 체크퀘스천. 학생들은 1인당 3개의 체크퀘스천을 만들고 교사에게 질문의 적절성과 문법 오류 등을 점검받는다. 이후 모둠원들은 각자 만든 질문을 주고받으며 영어의 말하기 실력을 길렀다.

임 교사는 “교사가 직접 본문을 해석하지 않아 자칫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교사의 질문 점검과 모둠 내에서의 질문·정답 주고받기를 통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본문과 자신의 삶을 연계한 질문인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을 만든다.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은 체크퀘스천과 달리 교과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특징. 예를 들어 영화 '백투더퓨처'와 '미래 발명품'을 다룬 교과서 본문을 읽었다면 “스마트폰의 보급이 인간에게 긍정적 영향만을 주었나?”와 같은 질문을 영어로 만드는 것. 학생들은 활동지에 1개의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을 적고, 자신의 모둠과 다른 조에 이를 공유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 적힌 활동지를 만나면 자신의 의견과 이름을 적는다. 활동지 교환을 마친 후 몇 가지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에 대해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며 삶의 태도와 가치관 등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영어로 글을 작성한 후 발표를 진행한 덕분에 적극적으로 발표에 임하며 영어 자신감을 회복했다.

임 교사는 “마지막 요약하기 단계에서는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학생들은 긴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기 위해 지문을 수회 반복해 읽으며 자연스럽게 내용을 체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영어 역량 골고루 키울 수 있는 영상 선택해야”

Q.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단순히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영상자료를 사용하기 보다는 수업주제와 연관 있는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수업 한 단원을 차시별로 쪼개 재구성했을 때 영상을 활용하는 맥락이 같아야 한다. 영어 교과의 경우 읽기·쓰기·듣기·말하기가 균형적으로 통합돼야 한다. 즉, 영상자료가 듣기뿐만 아니라 읽기, 말하기, 쓰기 활동에도 활용돼야 수업의 목적을 살리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영상을 선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난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길이가 긴 영상을 사용하면 강의식 수업과 다를 바 없다. 때문에 5분 이내의 간단한 영상이 적당하다. 영상 시청 전 영상에 대한 정보, 시청하는 이유 등을 간략히 소개해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흥미요소가 덜한 나레이션식 영상이라면 주제 및 주요 단서를 찾도록 해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Q. 수업의 효과는?

영상이 크게 재미있지 않아도 낯선 화자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보인다. 게다가 영상은 구성 자체가 짜임새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명료하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영상과 본문을 보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관한 질문을 만들었지만, 반복적인 4RS 훈련을 통해 점차 비판적인 질문, 삶과 연계된 질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단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상과 본문 내용을 깊이 학습하며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다.

Q.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질문을 만드는 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즉 질문을 구성하려면 이전의 학습단계가 모두 완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 학생들이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질문을 만들라고 하면 자칫 질문 만들기에 부담을 느끼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스케폴딩(비계)’이 중요하다. 비계란 건축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사다리꼴로, 건축물을 높이 쌓으려면 비계를 층층이 쌓아야 한다. 수업도 마찬가지다. 본문 학습을 4단계로 구성한 것처럼 수업에도 이러한 비계가 필요하다. 교사가 목표한 수준의 질문을 학생들이 만들어 낼 수 있으려면, 전체적인 수업 설계를 탄탄히 짜야한다. 글감의 난이도, 학습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하며 교사가 적절히 개입해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학습의 학습 수준에 따라 특정 학습은 10개, 20개의 비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성은 경기 늘푸른중 영어 교사